

## 총회 소식지 3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께,

아리차 스승예수의 집으로부터 성바오로수도회 총회 대의원들이 다시 인사 드립니다. 저희들은 총회사무국의 인도 아래 이미 여러 날 동안 향후 육 년 간 수도회를 이끌어갈 계획을 세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5 월 1 일 토요일부터 5 월 4 일 화요일까지 창립 백 주년을 맞는 수도회의 정체성과 수도회의 규범들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방법론은 일고여덟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에서 바오로인이라는 우리 정체성의 본질적인 면들과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도전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토론하고 그런 다음 각 그룹의 발표자들이 전체 모임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 후 전체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위원회가 구성되어 삼천년기 바오로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헌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서의 완성본은 총회의 엄숙한 선언이나 메시지 혹은 권고의 형태로 발표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 문서가 우리의 미래를 향해 열린 일종의 창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복음화라고 하는 임무에 새로워진 열정을 부여함으로써 참된 창조적 열정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창문 말입니다. 총회 대의원들 사이에 수도회의 염려와 기대를 서로 나누며 이러한 일에 참여하려는 원의가 컸기 때문에 총회사무국은 수도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체 대의원들이 모든 면에서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 “ 네 바퀴 ” 라고 하는 알베리오네의 “ 고전적인 형식 ” 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성과 공동체 생활, 공부와 양성, 사도직, 그리고 끝으로 가난(즉 재정 및 인간적인 자원을 어떻게 가치있게 활용하며 정확하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에 대한 생각들과 제안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는 향후 육 년 간을 위한 일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각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이 일반 목표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목표들과 실행 우선 순위들 그리고 실행 노선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5 월 6 일 목요일에는 총원장과 총평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식별의 시간이 시작되며 투표는 5 월 7 일 금요일 아침에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끊임없는 기도에 감사 드리면서 저희 앞에 놓인 이 중요한 선택을 천상 스승께서 잘 이끌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기도를 청합니다.

아리차 (로마), 2010 년 5 월 5 일

홍보 담당 비서 안토니오 리졸로 신부